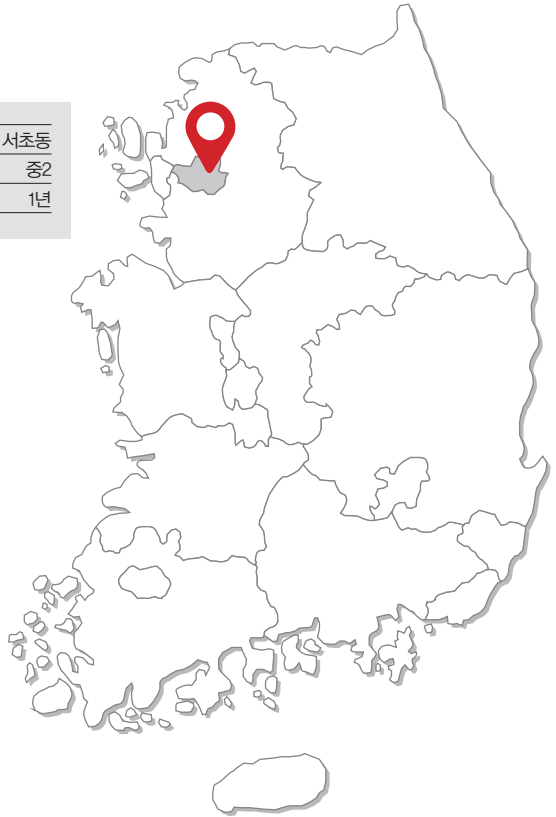


READER'S PAGE 독자에게 듣는다

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@naeil.com

거주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
자녀 중2
구독 기간 1년



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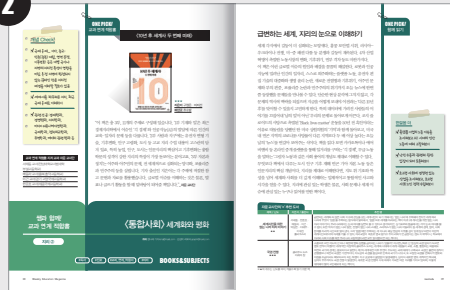
1



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
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윤채린
“사회적 메시지 전달하는
방송 제작자 되고 싶어요”

“사례가 구체적이고 생생하더라고요. 고교 생활을 미리 엿볼 수 있어 도움이 됐습니다.”

2



교과 연계 적합서 지리②
《통합사회》 세계사와 평화

“인문 계열 학과 진학을 생각 중인데 많이 읽고 생각해야겠죠. 교과 연계 도서를 통해 책을 다양하게 소개해주 좋더라고요.”

“독서부터 수시 합격생까지 구체적 사례로 대입에 대한 이해 높일 수 있어요”

안녕하세요? <내일교육>을
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?

<내일교육>을 구독 중인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발견했어요. 빌려서 읽어봤는데 기사가 좋고 입시를 잘 모르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구독을 신청했죠.

<내일교육>을 어떻게
활용하고 계신지요?

중2인 아이는 인문 계열 학과 진학을 고려하고 있어요. 책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야겠죠. 책 소개 기사가 있어서 반기웠어요. 게다가 교과 연계 도서인 만큼 고교 학습에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. 또 선배들을 인터뷰한 수시 합격생 기사는 사례가 구체적이어서 더 생생했습니다. 앞으로 고교에 진학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대입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은데 입시에 대해 설명해주는 기사도 눈에 들어오고요. 아직 입시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다 되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읽다 보니 예전보다는 한결 낫더라고요. 점점 더 익숙해지리라 생각해요.

<내일교육>이 앞으로
다뤘으면 하는
기사가 있나요?

최근 발표된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. 개편안의 첫 적용을 받는 중2거든요. 대치동이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들었어요. 여러 학원에서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<통합사회>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수능 과목으로 치를 <통합사회> <통합과학>에 대해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내일교육>에 바라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.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ⁿ



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. “안녕하세요! <내일교육> 편집부입니다.”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,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.